

내가 만나 지미 카터 정근모(전 과학기술처장관)

내가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처음 만난 것은 1997년 3월 국제헤비타트 운동(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위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만찬자리였다. 주최측은 참석자들 중 가장 먼 곳에서 왔으며 우리 부부에게 카터 부부 옆자리를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다. 그의 첫 인상에서 따뜻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저녁 식사도중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을 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어 그리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된 카터는 결코 성공적인 현직 대통령은 아니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미국 국민은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을 혐오하게 됐다. 닉슨의 후임 포드 대통령이 닉슨을 사면하고 난국을 수습하려 하자 국민들은 이름 없는 남부 조지아 주지사 지미 카터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미국의 양심을 찾고자 했다.

땅콩재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평범한 카터는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고 출중하지 못한 장교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부친이 별세하자 땅콩 농사의 가업을 이어받았다. 이런 그가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리라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매주일 교회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카터의 자산은 부모가 물려준 예수 중심의 삶이요, 예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믿음이였다.

닉슨이 사임하고 워싱턴 정가가 큰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지미 카터는 대통령 출마를 선언, 놀랍게도 당선돼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철저한 신앙심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선량한 땅콩 농부의 백악관 생활은 실패와 시련의 연속이였다. 에너지 위기가 다시 닥쳐왔고 이란 사태를 해결하려는 그의 노력은 철저히 실패하고 만다.

카터는 레이건 대통령에게 완전하게 패하고 공직을 물러나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나 공직생활 후의 그의 삶은 더 아름답고 만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국제적인 봉사활동에 나서서 그의 새로운 삶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대통령직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 과정에 불과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에도, 그 후 고향에 돌아와서도 변함없이 교회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전한다. 실제로 오전 11시의 예배시간보다 카터의 성경학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는 성경공부에 들어가기 전 그 주일 일어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그가 보는 견해를 이야기하고 30분간 성경강해를 한다. (예배순서면으로계속)

| | | |
|---|---|--|
|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 '이 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
| 제 2권 50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0년 12월 10일 |
|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 (Samoan Church) | | |

믿음과 이해

김동호 / 목사 · 동안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 주면 믿겠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다. 이해만 된다면 믿겠다라는 저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진리는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 약속을 하고 집회 장소를 갈 때마다 나는 그 장소의 위치를 묻고 약도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한다. 팩스로 약도를 받으면 나는 그 약도를 먼저 믿는다. 이 약도대로 가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이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약도대로 가면 거의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한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곳에 가는 길을 알게 된다. 다음부터는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게 되는 것이다.

진리 중에는 우리의 이해 능력 안에 있는 진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진리는 우리의 이해 능력 밖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해 밖에 있는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을까?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 이해 밖에 있는 진리를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해 밖에 있는 진리는 우선 믿음으로만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믿음의 결과와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그 열매와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믿었던 진리가 진실 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는 기독교의 진리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를 통하여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해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주 일 예 배

| | | |
|------------------------------|------------------------|------------------------|
| 영 광 송 Gloria | "Calvary" 1.3절:다같이 | 다 같 이 |
| 기 도 Prayer | | 이경석 집사 |
| 들옴& 부부성가대 Choir | | 신경화.장동연(소망교회) 부부성가대 |
|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 | |
| 설 교 Sermon | | 김동호 목사 |
| 찬 송 Hymn | (복음성가)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 다 같 이 |
|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 | 인 도 자 |
| *응 답 송 Response Song | "좋은신 하나님" | 다 같 이 |
| *위탁의 말씀 | | 인 도 자 |
| *축 도 Benediction | | 김성국 목사 |

<12월 예배 위원>

| 일 자 | 헌금위원 | 기 도 | teatime봉사 |
|------|---------|-------|-----------|
| 12/3 | 최윤호.송정섭 | 신 경 화 | 김영길.이영권 |
| 10일 | 김효권.이영주 | 이 경 석 | 정재정.이상욱 |
| 17일 | 이경석.한은영 | 이 영 권 | 최재학.이경석 |
| 24일 | 최재학.노은숙 | 이 선 우 | 김효권.김성국 |
| 31일 | 김영길.신경화 | 최 재 학 | 김교섭.최윤호 |

성경학교가 끝나면 카터 부부는 일반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후 카터는 방문객들과 일일이 기념사진을 찍는다. 지미 카터가 시작한 교회를 배경으로 한 카터 특유의 미소를 담은 이 사진들이 전 세계의 많은 가정에 전시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카터를 또다시 보게 된 것은 지난 3월21~27일 필리핀 전역에서는 벌어진 카터 사랑의 집짓기 사업터에서였다.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행사는 일년에 한번씩 일주일간 자원봉사자들이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을 짓는 것으로 99년 필리핀의 6개 도시에서 열렸으며 1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카터는 확실히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 벌써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카터는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하루 일찍 도착해 현장을 일일이 돌아봤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 책임자와 함께 짓고 있는 집들의 진행 상황을 하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새벽기도: 6:00

교 회 소 식

1.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지난주: 민수기 2. 롯기 1. 사무엘상 1 사무엘하 1
2. 김동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tea time을 가지면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 공동의회(예고)
다음주일은 재정보고를 위한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공동의회 참가자격: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입교인으로한다"(장로회 헌법 13장 86조)
4.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정기기도회(매월 둘째)가 목요일(14일) St.Stephens에서 모입니다.
5. 내년도 교회 목표"개인 경건의 시간(QT)의 생활화"
*실천사항:<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성경.찬송"
<주일저녁>"가정 예배"(예배문) 정착
6. 가정 "2분기도"
* "약속의 아비"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과 함께 "2분"기도를 실천사항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적극 협조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7. "믿음의 어머니"에서 KOSTA 식당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정기 가정심방: 내년부터 월 1회 "가정심방"제도를 갖습니다.(안내문 참조)
9. 12월의 교회력
성찬식(3).공동의회(17).직분임명(24).성탄절이브(24).성탄예배(25).송구영신예배(31)
송구영신예배(31)

나하나 점검했다.

일주일 내내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벽들을 쌓고 창문을 달고 페인트 칠하는 전직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자원봉사자' 라는 칭호 외에는 달리 불리기를 원치 않았다. 일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얘기하고 땀 흘리는 세계 지도자 카터는 그야말로 '예수 중심의 삶' 을 사는 것이었다.